

공동주택 실내공간 아트월의 구성특성 분석**

Analysis of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Art-walls in Apartment Houses

Author 박영순 Park, Young-Soon / 정희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은정 Kim, Eun-Jeong / 정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김성아 Kim, Seong-Ah / 정희원,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예술공학연구소 전임강사
임준빈 Im, Joon-Bin / 정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
임선희 Yim, Sun-Hee / 정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rt-walls which is a focal point in contemporary interiors of the apartment houses. The factors for the analysis were types of apartments, positions, widths, compositions of elevation, and materials of art-walls. 89 art-wall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ranging from 76㎡ to 187㎡. The result shows that wood was mostly applied to art-walls in small types of apartment in combination with other materials, and the composition of elevation was asymmetric. If the width of art-walls became smaller, the elevation was dominantly designed with symmetrical grid using tiles. Tiles turned out to be the general material for the single-applied material. However, if more than two materials were applied to art-walls, wood was chosen as the main material. Regardless of the types of apartment, big-sized art-walls were usually designed in the living room, and two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were applied to the walls. It reveals that art-walls of apartment houses have been planned and designed with focuses on the living room in the housing space. To make a modular panel for the art-walls, 400mm and 800mm sizes were both suggested, 400mm for the smaller composition, and 800mm for the larger composition of the art-walls.
A Wall image is becoming more essential to the living space these days, because it can be both decorative and also supportive to residents' various individualiti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urther researches on art-walls are continuously performed, and also various designs of art-walls based on the modular system ar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Keywords 아트월, 공동주택, 이미지월, 물리적 특성, 주거공간
Art-Wall, Apartment Houses, Image-Wall, Physical Characteristics, Living Spa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원시사회에서는 언어가 탄생하기 이전,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과 시각예술이 일찍이 발달하게 되었다. 선사시대인들은 바위, 땅, 나무 등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여 의사소통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미술행위를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과 예술이 결합되었다.

초기 예술행위는 언어를 대신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이

우선시 되었으나, 점차 의미전달과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추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후, 언어와 문자가 사용되면서 그림과 예술의 의사소통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조형과 장식적인 기능으로 대체되면서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¹⁾.

이러한 장식적인 예술과 일상의 결합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따라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공간 인테리어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심미성을 표출하기 위해 실내의 시각적 중심(focal point)을 이루는 미술작품의 장식과 함께, 벽면을 장식적으로 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eunjeong@yonsei.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엠마누엘 아나티 지음, 예술의 기원, 이승재 역, 바다출판사, 2008, pp.28-49

현하는 아트월이 등장하였다.

아트월은 흔히 이미지월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²⁾, 벽체 마감시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는 장식적인 부분을 지칭한다(권미경:2006, 이우상:2005). 아트월은 원래 상업 공간이나 사무공간 실내에서 벽면을 고급스럽게 마감할 때 사용하는 천판넬을 일컫는 용어였는데, 최근 들어 아파트의 실내마감이 고급화되면서 주거공간의 거실벽체에 도 아트월이 도입되었고, 이 후 다양한 디자인과 재료를 사용하여 거실을 포함한 실내의 여러 공간에 아트월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³⁾. 아트월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에는 이미지월(Image Wall), 포인트월(Point Wall), 데코레이션월(Decoration Wall) 등이 있다⁴⁾.

아트월은 실내 공간의 시각적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여 아트월에 적용하는 재료, 구성방법, 적용 위치, 크기 등이 유행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아트월은 최근 들어 주거공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장식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대인의 심미적 성향과 선호를 반영해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주거공간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은 아트월이 어떤 변화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대 주거공간의 장식적 요소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의 주거 유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주거공간에 계획된 아트월의 디자인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거주자의 공통된 미의식을 반영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아트월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거의 대표적 유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간에 나타난 아트월의 다양한 구성특성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특히, 향후 아트월의 계획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트월의 위치, 세대면적, 크기, 입면구성방식, 재료 등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아트월의 패널 모듈화를 위한 단위모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트월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아트월의 특성은 크게 아트월의 위치, 크기, 입면 구성방식, 재료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아트월의 위치와 함께 세대면적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대상은 2008년 건설도급(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분양하였거나 분양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공동주택의 세대면적은 66~195m²(20~50평형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195m²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진 세대의 경우 아트월의 연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제약이 거의 없어, 그 특성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트월의 조사방법은 건설사 웹사이트와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도면을 기준으로 평면도, 입면도와 실내조감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 주거공간 아트월의 선행연구 고찰⁵⁾

주거공간 아트월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트월이 비교적 최근 들어 주거공간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트월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트월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를 추출하고, 요소별 세부 항목을 분류하는 등 분석틀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였다.

아트월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아트월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것과, 아트월의 가변적 연출에 따른 감성적 측면을 연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공간 아트월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권미경:2006, 이우상:2005, 김보현:2007)에서는 아트월의 위치, 입면구성형식, 표면마감재료, 조명, 색채, 크기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아트월이 설치된 공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과 평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물리적 특성을 다루고 있는 대표 연구로 권미경(2006)은 아파트 아트월 디자인을 공간별 특성, 입면구성형식, 표면마감재료, 조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간별 특성은 거실, 침실, 식당, 복도, 현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입면구성형식은 수직형, 수평형, 복합형, 분할형, 격자기동형, 좌우기동형으로 나누었다. 표면마감재료는 벽지, 무늬목, 모양지, 타일, 대리석, 직물, 페인트,

2) 이우상(2005)과 권미경(2006)은 아트월과 이미지월을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트월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장식적이고 예술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아트월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3) 이우상, 아파트 거실 이미지월의 심미성 제고를 위한 가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4

4) 권미경, 아파트 이미지월 디자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5-6

5)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서는 아트월을 포함하여 이미지월, 데코레이션월, 포인트월, 벽이미지, 벽 장식 등 유사한 개념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모두 키워드로 검색하여 살펴보았다. 단, 본 연구에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트월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유리로 분류하였다.

이우상(2005)은 아파트 벽체마감재의 모듈화를 위한 패널 사이즈를 개발하기 위해 벽체마감재의 종류와 실제 아파트의 벽체 크기를 조사하였다. 벽체마감재에 사용된 종류는 페인트, 벽지, 목재, 타일, 패브릭, 석재를 비롯하여 유리, 금속재 등으로 분류하였다.

아트월의 물리적 특성 이외에 벽체의 가변성을 고려한 감성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고정된 벽체의 장식으로서 기존에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거주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색채, 빛, 재료의 다양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벽체의 감성적이고 유희적 시각연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우상(2005)은 앞서 아트월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패널의 모듈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김수연(2007)은 현대공간에서 보여지는 벽의 다양한 연출방법을 공간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벽의 시각적 공간연출이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트월의 물리적 특성 분석이 공간별 특성(위치), 입면구성형식, 마감재료, 벽체 크기, 조명, 색채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색채와 조명을 제외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감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식 및 가변적 연출에 초점을 두어 크기와 재료라는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트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각각의 요소별로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요소들간의 상호관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트월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아트월의 기본 모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2008년 건설도급(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선정하였다. 상위 3순위에 해당하는 D사, S사, H사를 대

6)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도면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조명에 의해 아트월에 적용된 재료의 색채가 왜곡되어 정확한 색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색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명은 아트월의 시각적 연출을 위한 도구로써, 아트월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분양하였거나 분양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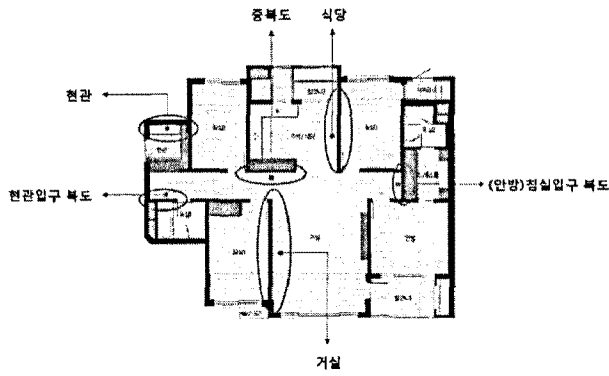
아트월의 조사방법은 건설사 웹사이트와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도면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아트월의 배치 및 디자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면도, 입면도와 실내조감도를 활용하였다. 세 개의 건설사를 통해 수집된 아파트 및 주상복합은 총 9군데로, 45개의 세대가 조사되었다. 세대면적별로는 66~96㎡(20평형대)가 11개, 97~129㎡(30평형대)가 13개, 130~162㎡(40평형대)가 14개, 163~195㎡(50평형대)가 7개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표 1> 건설사별 공동주택의 아트월 조사대상

	분류	분양시기	공급면적	
			세대	면적
D사	A(서울 마포구)	2008.11	30평형대	119.13㎡
			40평형대	139.74㎡
			40평형대	149.65㎡
			50평형대	168.05㎡
			50평형대	170.75㎡
	B(경기도 시흥)	2008.05	20평형대	76㎡
			20평형대	77㎡ (2EA)
			30평형대	122㎡
			40평형대	143㎡
			40평형대	144㎡
S사	C(서울시 강남구)	2009.05	20평형대	84.92㎡
			50평형대	164.72㎡
	D(서울시 중구)	2009.05	20평형대	84.85㎡
			20평형대	84.97㎡
	E(경기도 의왕시)	2009.04	20평형대	84.98㎡
			30평형대	117㎡
			20평형대	84.68㎡
			20평형대	84.76㎡
			30평형대	116.07㎡
			30평형대	120.26㎡
H사	F(서울시 동대문구)	2008.08	20평형대	84.80㎡
			30평형대	108.69㎡
			30평형대	110.36㎡
			30평형대	111.92㎡
			40평형대	144.30㎡
	G(서울시 동대문구)	2009.05	40평형대	145.14㎡
			30평형대	107.60㎡
			30평형대	107.69㎡
			40평형대	151.52㎡
			20평형대	80.63㎡
H(서울시 은평구)	2009.05	30평형대	109.60㎡	
		40평형대	140.46㎡	
		50평형대	168.50㎡	
		30평형대	119㎡	
		30평형대	129㎡	
I(경기도 용인시)	2009.05	40평형대	151㎡	
		40평형대	156㎡	
		40평형대	164㎡	
		50평형대	170㎡	
		50평형대	182㎡	
			50평형대	187㎡

3.2. 실내 아트월의 위치 및 크기

앞서 수집된 45개 세대를 대상으로 아트월이 적용된 공간유형을 살펴본 결과, 총 89개의 아트월이 조사되었다. 아트월이 적용된 공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공간유형은 크게 현관, 복도, 거실, 식당으로 나눌 수 있고, 복도는 현관입구 복도, 중복도(대형 면적의 세대에 해당), 침실입구 복도로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트월이 적용된 공간유형을 현관, 현관입구 복도, 중복도, 거실, 식당, 침실입구 복도 등 총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트월이 적용되는 주거 공간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실내공간에 적용된 아트월의 배치공간유형

주거공간에 적용된 아트월 크기는 그 폭이 1,300mm에서부터 7,000mm가 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천장고는 일반 아파트가 2,300mm이었던 것이 최근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에서는 대부분 2,400mm로 변화되어, 과거에 비해 100mm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공간에 적용된 아트월의 공간유형 및 그 크기를 각각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4. 공동주택 실내공간 아트월 특성 분석

4.1. 위치별 아트월 특성 분석

먼저 아트월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아트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트월은 거실(51%) 다음으로 현관입구 복도(18%)>침실입구 복도(15%)>중복도(10%)>현관(4%)>식당(2%)의 순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거 실내공간에 아트월을 계획하는데 있어 거실과 함께 복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임을 나타낸다. 특히, 현관의 경우 현관 내부에 아트월을 설치하기 보다는 현관입구 복도에 아트월을 설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면적별로 살펴보면, 모든 면적에서 중복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유형에서 비슷한 빈도수를 보였다. 이것은 공간의 특성상 중복도가 다른 공간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사된 아트월의 폭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세

<표 3> 아트월의 위치에 따른 세대면적별 아트월의 개수

	거실	현관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	중복도	식당	계
66~96㎡(20py)	11	0	0	0	0	0	11
97~129㎡(30py)	13	1	4	5	1	1	25
130~162㎡(40py)	13	2	7	5	6	0	33
163㎡~195㎡(50py)	8	1	5	3	2	1	20
계(개수)	45개	4개	16개	13개	9개	2개	89개
비율(%)	51%	4%	18%	15%	10%	2%	100%

<표 2> 주거공간 아트월의 배치 공간유형 및 아트월 폭

분류	공급면적		공간유형	폭(단위mm)	
	세대	면적			
D사	A	30평형대	119.13㎡	거실	5,100
				현관입구 복도	1,700
				침실입구 복도	1,300
				거실	5,250
				현관입구 복도	2,000
		40평형대	139.74㎡	침실입구 복도	1,600
			거실	5,100	
			현관	2,520	
			현관입구 복도	1,900	
			침실입구 복도	2,400	
	40평형대	149.65㎡	거실	5,500	
		현관	1,800		
		현관입구 복도	2,400		
		침실입구 복도	1,300		
	50평형대	168.05㎡	거실	4,700	
		현관입구 복도	3,130		
		침실입구 복도	1,300		
	50평형대	170.75㎡	거실	4,000	
		거실	4,025		
		거실	4,680		
		거실	3,850		
		현관입구 복도	2,900		
		거실	5,160		
		중복도	2,600		
		거실	4,600		
		중복도	2,200		
		거실	4,700		
		현관입구 복도	3,200		
		침실입구 복도	2,450		
		거실	6,000		
		중복도	2,300		
		거실	3,900		
		현관입구 복도	1,600		
		침실입구 복도	2,060		
		거실	3,800		
		거실	4,400		
		현관입구 복도	2,480		
		침실입구 복도	1,800		
		식당	4,050		
		거실	3,000		
		거실	3,300		
		거실	3,000		
		거실	3,600		
		침실입구 복도	1,400		
		거실	3,600		
		거실	3,600		
		거실	4,200		
		현관입구 복도	2,100		
		거실	3,600		
		중복도	2,600		
		거실	2,400		
		거실	3,300		
		침실입구 복도	1,350		
		거실	3,600		
		현관	1,400		
		거실	3,000		
		현관입구 복도	1,800		
		거실	4,000		
		현관	1,500		
		중복도	1,600		
		거실	3,600		
		현관입구 복도	1,900		
		침실입구 복도	1,450		
		거실	3,600		
		침실입구 복도	1,550		
		거실	3,600		
		침실입구 복도	1,600		
		거실	3,300		
		현관입구 복도	2,300		
		거실	3,300		
		거실	4,120		
		식당	1,480		
		거실	4,430		
		거실	4,680		
		거실	4,250		
		거실	4,355		
		거실	3,855		
		중복도	2,530		
		거실	4,910		
		현관입구 복도	1,435		
		중복도	1,910		
		거실	7,490		
		거실	4,910		
		현관입구 복도	2,460		
		중복도	4,030		
		거실	4,490		
		중복도	4,445		
		거실	5,295		
		현관입구 복도	4,575		

대면적, 아트월의 위치 및 아트월 폭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전체 수집된 아트월은 최소 폭 1,300mm에서 최대 폭 7,490mm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크기를 나타냈다. 이 들을 사이즈별로 정리하면 아트월 폭이 1m 이상 2m 미 만의 경우 22개(25%), 2m 이상 3m 미만이 17개(19%), 3m 이상 4m 미만이 21개(23.5%), 4m 이상 5m 미만이 21 개(23.5%), 5m 이상 6m 미만이 6개(7%), 그리고 6m 대와 7m대가 각각 1개씩(1%)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의 내용을 바탕으로 1m 이상 2m 미만에 해당 하는 폭을 '소' 사이즈로 정하고, 폭 2m 이상 3m 미만의 경우를 '중', 3m 이상 5m 미만의 경우를 '대', 5m 이상 은 '특대' 사이즈로 정의하였다.

<표 4> 아트월 폭에 따른 크기 분류

	1m대	2m대	3m대	4m대	5m대	6m대	7m대
	1,300 (3)	2,000	3,000 (3)	4,000 (2)	5,100 (2)	6,000	7,490
	1,350	2,060	3,130	4,025	5,160		
	1,400 (2)	2,100	3,200	4,030	5,250		
	1,435	2,200	3,300 (4)	4,050	5,295		
	1,450	2,300 (2)	3,600 (8)	4,120	5,500		
	1,480	2,400 (3)	3,800	4,200			
	1,500	2,450	3,850	4,250			
	1,550	2,460	3,855	4,355			
	1,600 (4)	2,480	3,900	4,400			
	1,700	2,520		4,430			
	1,800 (3)	2,530		4,445			
	1,900 (2)	2,600 (2)		4,490			
	1,910	2,900		4,575			
				4,600			
				4,680 (2)			
				4,700 (2)			
				4,910 (2)			
계 (개)	22	17	21	21	6	1	1
비율 (%)	25%	19%	23.5%	23.5%	7%	1%	1%

총 4가지의 크기로 분류된 아트월의 폭을 아트월이 설치된 위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에서는 총 45 개의 아트월이 대(36개)>특대(8개)>중(1개)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현관에서는 총 4개의 아트월이 소(3개)>중(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관입구 복도(총 16개)에서는 중(7개)>소(6개)>중(3개)의 순으로, 침실입구 복도(총 13개)에서는 소(10개)>중(3개)의 순으로, 중복도(총 9개)에서는 중(5개)>대(2개)=소(2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당(총 2개)에서는 대(1개)와 소(1개)가 각각 하나씩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고).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특대' 사이즈의 아트월은 거실에서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의 경우 역시, 거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거실 공

7) '대' 사이즈의 경우, 폭 3m대의 아트월 대부분이 반올림하였을 때 4m에 가깝고, 폭 4m대의 아트월 역시 반올림하였을 때 4m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라 이 두 크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이즈로 묶어서 정의하였다.

<표 5> 공간유형에 따른 아트월 크기(폭) 분류

(단위:개)

아트월 크기	거실	현관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	식당	중복도	계(%)
특대	8	-	-	-	-	-	8(9%)
대	36	-	3	-	1	2	42(47%)
중	1	1	7	3	-	5	17(19%)
소	-	3	6	10	1	2	22(25%)
계	45	4	16	13	2	9	89(100%)

간에 폭 3m 이상의 넓은 크기의 아트월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크기의 아트월은 현관입구 복도와 중복도에서 주로 나타났고, '소' 크기의 아트월은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에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비교적 좁은 공간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치에 따라서는 거실에서는 '특대'와 '대' 크기의 아트월이 주를 이루어 다른 공간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아트월이 계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대 주거공간에서 거실이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관,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에서는 폭이 좁은 아트월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현관과 침실입구 복도에는 폭이 2m 미만의 가장 작은 크기의 아트월이 주로 사용되었고, 현관입구 복도와 중복도의 경우 2m 이상 3m 미만의 '중' 크기의 아트월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 거실 다음으로 현관입구 복도와 침실입구 복도에 아트월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공간으로, 아트월이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장식적이고 심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세대면적별 아트월 특성 분석

다음으로 세대면적별 아트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89개의 아트월 중 66~96㎡(20평형대)에서 11개(12%), 97~129㎡(30평형대)에서 25개(28%), 130~162㎡(40평형대)에서 33개(37%), 163~195㎡(50평형대)에서 20개(23%)의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면적별로 나타나는 아트월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96㎡(20평형대)에서는 거실에서만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97~129㎡(30평형대)에서는 거실,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 중복도, 현관, 식당 등 모든 공간유형에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130~162㎡(40평형대) 주거공간에서는 식당을 제외한 거실,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 현관, 중복도에 아트월이 적용되었고, 163~195㎡(50평형대)에서는 97~129㎡(30평형대)와 마찬가지로 거실, 현관입구 복도, 침실입구 복도, 현관, 식당, 중복도 등 모든 유형에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세대면적별 아트월의 위치에 따른 아트월의 개수 및 폭을 살펴본 결과, 66~96㎡(20평형대)에서는 11개의 아트월이 거실

에만 분포하였고 그 폭은 2,400~4,680mm에 해당하였다.

<표 6> 세대면적별 아트월의 위치에 따른 아트월의 특성

공간 유형	66~96㎡ (20평형대)		97~129㎡ (30평형대)		130~162㎡ (40평형대)		163~195㎡ (50평형대)	
	빈도	아트월 폭mm	빈도	아트월 폭mm	빈도	아트월 폭mm	빈도	아트월 폭mm
거실	11	2,400~4,680	13	3,000~5,100	13	3,300~6,000	8	4,400~7,490
현관	-	-	1	1,400	2	1,500~2,520	1	1,800
현관입구 복도	-	-	4	1,700~2,900	7	1,435~3,200	5	2,400~4,575
침실입구 복도	-	-	5	1,300~1,600	5	1,450~2,450	3	1,300~1,800
식당	-	-	1	1,480	-	-	1	4,050
중 복도	-	-	1	2,600	6	1,600~2,600	2	4,030~4,445
계 (%)	11 (12%)		25 (28%)		33 (37%)		20 (23%)	

97~129㎡(30평형대)에서는 거실에서 13개, 현관 1개, 현관입구 복도에서 4개, 침실입구 복도에서 5개, 식당 1개, 중복도에서 1개의 아트월이 수집되었고, 각각의 폭으로는 거실이 3,000~5,100mm, 현관은 1,400mm, 현관입구 복도는 1,700~2,900mm, 침실입구 복도는 1,300~1,600mm, 식당은 1,480mm, 중복도는 2,600mm의 크기가 조사되었다.

130~162㎡(40평형대)에서는 거실에서 13개, 현관 2개, 현관입구 복도 7개, 침실입구 복도 5개, 중복도에서 6개의 아트월이 나타났다. 그 크기로는 거실이 3,300~6,000mm, 현관은 1,500~2,520mm, 현관입구 복도는 1,435~3,200mm, 침실입구 복도는 1,450~2,450mm, 중복도는 1,600~2,600mm의 범위가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163~195㎡(50평형대)에서는 거실에서 8개, 현관 1개, 현관입구 복도 5개, 침실입구 복도 3개, 식당 1개, 중복도 2개의 아트월이 수집되었고, 아트월의 폭 범위로는 거실이 4,400~7,490mm, 현관이 1,800mm, 현관입구 복도가 2,400~4,575mm, 침실입구 복도가 1,300~1,800mm, 식당이 4,050mm, 중복도가 4,030~4,445m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모든 세대면적에서 아트월은 거실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이 작은 66~96㎡(20평형대)에서는 거실에만 유일하게 아트월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평형에서는 거의 모든 공간유형에 아트월이 적용되었다.

97~129㎡(30평형대)에서는 거실(13개) 다음으로 침실입구 복도(5개)>현관입구 복도(4개) 순으로 아트월이 많이 설치되었고, 130~162㎡(40평형대)에서는 거실(13개) 다음으로 현관입구 복도(7개)>중복도(6개)>침실입구 복도(5개) 순으로 아트월이 많이 사용되었다. 163~195㎡(50평형대)에서는 거실(8개) 다음으로 현관입구 복도(5개)>침실입구 복도(3개) 순으로 아트월이 계획되었다.

아트월의 폭에 있어서는 세대면적이 커질수록 같은 공간유형에서도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실의 경우 66~96㎡(20평형대)에서는 최소폭이 2,400mm이고 최대폭이 4,680mm인데 비해, 163~195㎡(50평형대)에서는 최소폭이 4,400mm이고 최대폭이 7,490mm에 해당하여 최소폭이 66~96㎡(20평형대)의 최대폭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세대면적별 아트월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96㎡(20평형대)(총 10개)에서는 대(9개)>중(1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사용되었고, 97~129㎡(30평형대)(총 26개)에서는 대(13개)>소(9개)>중(3개)=특대(1개)의 순으로, 130~162㎡(40평형대)(총 34개)에서는 대(10개)=중(10개)>소(9개)>특대(5개)의 순으로, 163~195㎡(50평형대)(총 19개)에서는 대(10개)>소(4개)>중(3개)>특대(2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적용되었다(<표 7> 참고).

<표 7>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 크기(폭) 분류

아트월 크기	66~96㎡ (20평형대)	97~129㎡ (30평형대)	130~162㎡ (40평형대)	163~195㎡ (50평형대)	계
특대	-	1	4	3	8
대	10	12	10	10	42
중	1	3	10	3	17
소	-	9	9	4	22
계	11	25	33	20	89

<표 7>을 통해 볼 때, 폭 5m 이상의 '특대' 아트월은 면적이 작은 세대보다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면적이 큰 세대에서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 사이즈는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나타났고, '중'과 '소' 규모의 작은 아트월은 면적이 96㎡ 이하의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66~96㎡(20평형대)과 같은 소형 면적세대의 경우, 작은 크기의 아트월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 보다, 시각적 강조를 위해 한 군데에 폭 3m~5m 사이의 넓은 아트월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97~129㎡(30평형대) 이상의 주거공간은 다양한 크기의 아트월을 사용하여 개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3. 아트월의 입면구성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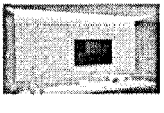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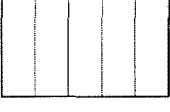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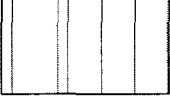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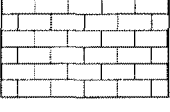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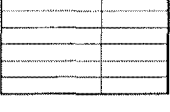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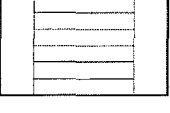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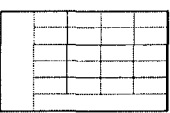

마감재 접합라인에 의한 아트월의 입면구성특성⁸⁾을 살펴본 결과, 세대와 아트월의 위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입면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입면구성형식 분류를 참고하여 크게 일체형, 격자형, 수직형, 수평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아트월을 분류하고, 일체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대칭/비대칭 혹은 규칙/불규칙으로 구분하였다.⁹⁾(<표 8> 참고).

8) 아트월은 재료와 디자인에 따라 벽에서부터 패널이 튀어나온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마감재 접합라인에 의해서만 입면구성을 살펴보았다. 아트월 바닥에 설치된 장식장과 TV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요소는 입면구성에서 제외하였다.

9) 아트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아트월 입면구성형식은 수직형, 수평형, 복합형, 분할형, 격자기동형, 좌우기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일체형을 기본유형에 추가하고, 격

<표 8> 아트월 입면구성의 대표적 유형

구분	기본 유형	세부 유형	이미지	대표적 사례	
1	일체형	일체형			
		아트월 전체가 특별한 계획없이 통자로 계획된 경우			
2	격자형	규칙적 격자형			
		아트월 전체가 규칙적인 그리드로 계획된 경우			
		불규칙 격자형			
		아트월 전체가 불규칙적인 그리드로 계획된 경우			
3	수직형	대칭 수직형			
		아트월 전체가 수직으로 계획되면서 좌우대칭인 경우			
		비대칭 수직형			
		아트월 전체가 수직으로 계획되면서 좌우 비대칭인 경우			
4	수평형	대칭 수평형			
		아트월이 수평방향으로 계획되면서 좌우대칭인 경우			
		비대칭 수평형			
		아트월이 수평방향으로 계획되면서 좌우 비대칭인 경우			
5	복합형	대칭 복합형			
		아트월에 수직과 수평, 격자 등의 계획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좌우대칭인 경우			
		비대칭 복합형			
		아트월에 수직과 수평, 격자 등의 계획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좌우 비대칭인 경우			

일체형은 벽면 전체를 통자로 계획하여 아무 패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격자형은 수직 수평형의 격자 무

자기동형과 좌우기동형은 복합형 또는 분할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대신, 일체형을 제외한 수직형, 수평형, 복합형, 분할형을 좌우대칭과 비대칭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분할형은 다른 유형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격자형이라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늑가 규칙적으로 나 있는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적용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었다. 수직형은 아트월 전체가 수직으로 계획되면서 좌우대칭인 경우와 좌우 비대칭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수평형은 아트월 전체가 수평으로 계획되면서 좌우대칭과 비대칭으로 세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아트월에 수직과 수평 계획 또는 격자무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좌우대칭인 경우와 비대칭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9> 위치와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입면구성 분포 (단위: 개)

입면 구성		거실	현관	현관 입구 복도	침실 입구 복도	중 복도	식당	계
일체형	20평	-	-	-	-	-	-	0
	30평	2	-	-	2	-	-	4
	40평	-	-	-	-	-	-	0
	50평	-	-	1	-	-	-	1
	계	2	-	-	2	-	-	4
규칙 격자	20평	3	1	3	3	-	1	11
	30평	3	1	3	4	3	-	14
	40평	2	-	-	1	-	-	3
	50평	-	-	-	-	-	-	0
	계	8	2	6	8	3	-	27
불규칙 격자	20평	1	-	-	-	-	-	1
	30평	-	-	-	-	-	-	0
	40평	-	-	-	-	-	-	0
	50평	-	-	-	-	-	-	0
	계	1	-	-	-	-	-	1
대칭 수직	20평	3	-	1	-	1	-	5
	30평	5	1	1	-	1	-	8
	40평	3	1	2	2	-	1	9
	50평	-	-	-	-	-	-	0
	계	11	2	4	3	1	1	22
비대칭 수직	20평	1	-	-	-	-	-	1
	30평	-	-	-	-	-	-	0
	40평	-	-	-	-	-	-	0
	50평	-	-	-	-	-	-	0
	계	1	-	-	-	-	-	1
대칭 수평	20평	2	-	2	1	1	-	6
	30평	2	-	2	-	2	-	6
	40평	-	-	-	-	-	-	0
	50평	-	-	-	-	-	-	0
	계	4	-	4	1	2	-	11
비대칭 수평	20평	1	-	-	-	-	-	1
	30평	-	-	-	-	-	-	0
	40평	-	-	-	-	-	-	0
	50평	-	-	-	-	-	-	0
	계	1	-	-	-	-	-	1
대칭 복합	20평	-	-	-	-	-	-	0
	30평	-	-	-	-	-	-	0
	40평	3	-	-	-	-	-	3
	50평	-	-	-	-	-	-	0
	계	3	-	-	-	-	-	3
비대칭 복합	20평	5	-	-	-	-	-	5
	30평	-	-	-	-	-	-	0
	40평	-	-	1	-	1	-	2
	50평	1	-	-	-	-	-	1
	계	6	-	1	-	1	-	8
계	45	4	16	13	9	2	89 (100%)	

위에서 제시된 9가지의 입면구성유형에 따라 주거공간 아트월의 입면구성 특성을 살펴보면, 규칙격자(34%)>대칭수직(28%)>대칭수평(15%)>비대칭복합(9%)>일체형(6%)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불규칙격자, 비대칭수평, 비대칭수직, 대칭복합은 3% 이하의 빈도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대칭 또는 불규칙보다는 규칙과 대칭구조를 아트월의 입면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치에 따라서는 거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유형에서 규칙격자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거실은 대칭수직형(14개) 다음으로 규칙격자형(10개)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규칙격자형이 모든 위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칭수직형과 규칙격자형을 제외하고서는, 거실의 경우 비대칭복합형이 나타났고, 현관복도와

중복도에서 대칭수평형이, 침실입구복도에서 일체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위치에 따른 아트월은 대칭수직형과 규칙격자형이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참고).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입면구성을 살펴보면, 66~96㎡(20평형대)은 비대칭복합(5개)>대칭수직(3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많이 나타났다. 97~129㎡(30평형대)에서는 규칙격자(11개)>대칭수직(5개)>일체형(4개)>비대칭수직(3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130~162㎡(40평형대)에서는 규칙격자(14개)>대칭수직(8개)>대칭수평(6개)>대칭복합(3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사용되었다. 163~195㎡(50평형대)에서는 대칭수직(9개)>대칭수평(6개)>규칙격자(3개)의 순으로 아트월이 사용되어, 66~96㎡(20평형대)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대칭과 규칙적인 입면구조를 주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97~129㎡(30평형대)과 130~162㎡(40평형대)은 입면구조에 있어서 규칙격자형과 대칭수직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유사한 아트월의 계획을 보여주었고, 66~96㎡(20평형대)은 유일하게 비대칭복합형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66~96㎡(20평형대)과 같은 소형 면적세대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시각적 강조를 위해 비대칭복합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63~195㎡(50평형대)는 97~162㎡(30~40평형대)와 유사한 입면구성을 가지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유형의 빈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참고).

<표 10>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입면구성 분포 (단위: 개)

	일체형	규칙격자	불규칙격자	대칭수직	비대칭수직	대칭수평	비대칭수평	대칭복합	비대칭복합
66~96㎡	-	2	-	3	-	1	-	-	5
97~129㎡	4	11	1	5	3	-	1	-	-
130~162㎡	-	14	-	8	-	6	-	3	2
163~195㎡	1	3	-	9	-	6	-	-	1
계	5	30	1	25	3	13	1	3	8

크기에 따른 아트월의 입면구성은 '특대' 사이즈의 경우 대칭수직(4개)>대칭수평(2개)의 순으로, '대' 사이즈의 경우, 대칭수직(12개)>규칙격자(11개)>대칭수평(6개)>비대칭복합(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 사이즈는 규칙격자(8개)>대칭수직(4개)의 순으로, '소' 사이즈의 경우 규칙격자(11개)>대칭수직(5개)>대칭수평(3개)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중'과 '소' 사이즈의 아트월은 규칙격자형과 대칭수직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동일한 입면구성유형을 보였고, '특대'와 '대'의 경우 대칭수직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칭수직형은 모든 크기의 아트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입면구성이지만, 특히 폭이 3m이상의 큰 사이즈의 경우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m 미만의 폭을 가진 작은 사이즈의 아트월은 대칭수직형도 자주 사용되지만 큰 규모의 아트월과 달리 규칙격자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참고).

<표 11> 크기에 따른 아트월의 입면구성 분포 (단위: 개)

	일체형	규칙격자	불규칙격자	대칭수직	비대칭수직	대칭수평	비대칭수평	대칭복합	비대칭복합
특대	-	-	-	4	-	2	-	1	1
대	2	11	1	12	3	6	1	2	4
중	1	8	-	4	-	2	-	-	2
소	2	11	-	5	-	3	-	-	1
계	5	30	1	25	3	13	1	3	8

이상으로 아트월의 입면구성을 아트월의 위치, 세대면적, 크기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아트월은 규칙격자형과 대칭수직형이 많이 사용되어 불규칙/비대칭 유형보다 규칙적이고 대칭구조를 이룬 입면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있어서는 거실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규칙격자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거실의 경우 대칭수직형 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세대면적에 따라서는 66~96㎡(20평형대)의 소형 면적세대에서는 시각적 강조를 위해 비대칭복합형이 주를 이룬 반면, 나머지 면적에서는 대칭수직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63~195㎡(50평형대)의 경우 대칭수평형이 그 뒤를 이어, 97~162㎡(30~40평형대)의 규칙격자형과 차이를 보였다. 크기에 따라서는 '중' 이하(폭 3m 미만)의 아트월에서는 규칙격자형을 우선으로 대칭수직형이 함께 나타났고, 폭 3m 이상 큰 규모의 아트월에서는 대칭수직형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아트월의 입면구성은 규칙적이거나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주거공간에서 역동성이 강한 비대칭과 불규칙보다는 규칙성 있는 안정적인 입면구성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마감재 접합라인에 의한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 그리드로 아트월이 구성되어 모던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대로 오면서 건축과 인테리어 경향이 점차 모던하고 단순해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과도한 개성적 표현보다는 보편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식성이 강한 주거공간요소로서의 아트월 역시 복잡하고 곡선적인 입면구성보다는 추상적이고 모던한 형태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단조롭고 획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좌우대칭과 비대칭, 규칙과 불규칙적인 형태로 다양한 비율의 그리드를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가변성을 부여하고 세대면적에 따른 거주자의 개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4.4. 아트월에 적용된 재료 분석

아트월에 적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벽지, 목재(무늬목), 시트지(필름지), 타일, 대리석, 패브릭, 페인트 등이 있다. 과거에는 목재가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공동주택간의 경쟁과 거주자의 개성적 표현을 위해 벽지, 타일, 대리석 등 다양한 재료를 발굴하여 적용하게 되었고, 단일재료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트월에 나타난 재료를 살펴본 결과, 목재, 타일, 벽지, 대리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아트월의 위치와 평형, 크기, 입면구성방식 등에 따라서 단일재료만 적용되기도 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어우러져 사용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아트월 재료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일(52%)>목재(25%)>벽지(17%)>대리석(7%)의 순으로 타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치에 따라서는 거실의 경우 타일과 목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거실과 식당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는 타일이 주재료로 나타났다(<표 12>참고).

<표 12> 위치와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분포 (단위: 개)

입면 구성	거실	현관	현관 입구 복도	침실 입구 복도	중 복도	식당	계
목재	20평	8	-	-	-	-	8
	30평	7	-	-	1	-	8
	40평	3	-	1	1	-	6
	50평	2	-	2	-	1	5
타일	20평	7	-	-	-	-	7
	30평	8	1	3	4	1	17
	40평	9	1	5	4	-	23
	50평	3	1	2	1	2	9
벽지	20평	4	-	-	-	-	4
	30평	2	-	1	-	1	4
	40평	2	1	1	-	-	4
	50평	1	-	1	2	-	5
대리석	20평	-	-	-	-	-	0
	30평	1	-	-	-	-	1
	40평	1	-	-	-	1	2
	50평	5	-	-	-	-	5
계	63	4	16	13	9	3	108(100%)

세대면적에 따라서는 66~96㎡(20평형대)의 경우, 목재(8개)>타일(7개)>벽지(4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97~129㎡(30평형대)의 경우 타일(17개)>목재(4개)>벽지(4개)의 순으로 재료가 사용되었다. 130~162㎡(40평형대) 역시 타일(23개)>목재(6개)>벽지(4개)의 순으로 97~129㎡(30평형대)와 동일한 재료분포를 보였고, 50평형은 타일(9개) 다음으로 목재, 벽지, 대리석이 동일한 빈도(각각 5개)로 사용되었다. 면적별로는 130~162㎡(40평형대)(35개)>97~129㎡(30평형대)(30개)>163~195㎡(50평형대)(24개)>66~96㎡(20평형대)(19개)의 순으로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표 13>참고).

<표 13>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분포 (단위: 개)

	목재	타일	벽지	대리석	계
66~96㎡(20평형대)	8	7	4	-	19
97~129㎡(30평형대)	8	17	4	1	30
130~162㎡(40평형대)	6	23	4	2	35
163~195㎡(50평형대)	5	9	5	5	24
계	27	56	17	8	108

크기에 따른 재료분포를 살펴보면 '특대'의 경우, 타일(5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 사이즈는 타일(23개)>목재(19개)>벽지(10개)의 분포를 보였다. '중' 사이즈는 타일(10개)>벽지(4개)>목재(3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 크기에서는 타일(16개)>목재(5개)>벽지(3개)의 순으로 재료사용을 보였다. 크기별로 사용된 재료의 개수는

'대'(57개)>'소'(24개)>'중'(18개)>'특대'(9개)의 순으로 '대' 크기에서 가장 많은 재료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4>참고).

<표 14> 크기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분포 (단위: 개)

	목재	타일	벽지	대리석	계
특대	1	5	1	2	9
대	19	23	10	5	57
중	3	10	4	1	18
소	5	16	3	0	24
계	28	54	18	8	108

입면구성에 따라서는 일체형에서는 목재만 사용되었고, 불규칙격자형과 비대칭수평형은 타일만 적용되었다. 규칙격자형과 대칭수평형, 대칭복합형은 타일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대칭수직형은 벽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대칭수직형과 비대칭복합형은 목재와 타일이 동일한 빈도로 자주 사용되었다(<표 15>참고).

<표 15> 입면구성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분포 (단위: 개)

	일체형	규칙 격자	불규칙 격자	대칭 수직	비대칭 수직	대칭 수평	비대칭 수평	대칭 복합	비대칭 복합
목재	5	2	-	10	3	-	-	2	6
타일	-	24	1	5	3	11	1	3	6
벽지	-	-	-	17	-	-	-	-	1
대리석	-	5	-	-	-	2	-	-	1
계	5	31	1	32	6	13	1	5	14

빈도 분포에 이어 단일재료와 복합재료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총 89개의 아트월 중 단일재료가 사용된 곳은 70군데로 복합재료(19개)보다 우세한 비율을 나타냈다. 세대면적별로는 66~96㎡(20평형대)에서만 복합재료(8개)가 더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면적에서는 단일재료가 우세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소형면적이 다른 면적에 비해 공간적 제약으로 아트월이 가장 적게 사용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통해 보다 큰 시각적 강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16>참고).

<표 16> 위치와 세대면적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특성 (단위: 개)

입면 구성	거실	현관	현관 입구 복도	침실 입구 복도	중 복도	식당	계
단일 재료	20평	3	-	-	-	-	3
	30평	8	1	4	5	1	20
	40평	11	2	7	5	6	31
	50평	5	1	5	3	2	16
소계	27	4	16	13	9	1	70
복합 재료	20평	8	-	-	-	-	8
	30평	5	-	-	-	-	5
	40평	2	-	-	-	-	2
	50평	3	-	-	-	1	4
소계	18	0	0	0	0	1	19

크기에 따라서는 모든 크기의 아트월에서 단일재료가 복합재료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과 '소' 크기의 아트월에서는 복합재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단일재료에 집중되어 있어서, 폭이 좁은 아트월의 경우 시각적으로 공간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위해 시각적 분산을 유발하는 복합재료보다는 단일재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7>참고).

<표 17> 크기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특성

(단위: 개)

	특대	대	중	소	계
단일재료	7	25	16	22	70
복합재료	1	17	1	0	19
계	8	42	17	22	89

입면구성에 따라서는 비대칭수직형과 대칭복합형, 비대칭복합형에서만 복합재료가 더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단일재료가 주를 이루었다. 복합형의 경우 입면구성에서 격자, 수평, 수직형의 다양한 구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재료도 여러 가지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체형의 경우와 규칙성을 지닌 입면구성에서는 단일재료가 주로 적용되었다(<표 18>참고).

<표 18> 입면구성에 따른 아트월의 재료 특성

(단위: 개)

	일체형	규칙격자	불규칙격자	대칭수직	비대칭수직	대칭수평	비대칭수평	대칭복합	비대칭복합
단일재료	5	29	1	18	-	13	1	1	2
복합재료	-	1	-	7	3	-	-	2	6
계	5	30	1	25	3	13	1	3	8

이상으로 살펴본 아트월의 재료 분포와 특성을 종합하면, 아트월의 위치, 세대면적, 입면구성,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타일이 가장 선호되는 재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66~96㎡(20평형대)의 소형 면적의 경우, 목재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면적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재료를 적용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재료의 복합적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66~96㎡(20평형대)에서 오히려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공간의 제약을 아트월의 시각적 강조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폭이 3m 미만의 아트월에서는 복합재료보다는 단일재료가 선호되었는데, 이는 폭이 좁은 곳에 아트월을 계획하는 경우 시각적 확대효과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6~96㎡(20평형대)의 경우 주거공간의 규모는 협소하지만, 아트월은 '대' 크기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복합재료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트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목재, 타일, 벽지, 대리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대량생산·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합리적인 재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이와 더불어 시공의 용이함과 관리의 편의성 등의 문제로 인해 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5. 아트월 패널의 모듈화 제안

이상의 결과에서 아트월은 위치, 세대면적, 입면구성,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아트월의 계획시 아트월 크기가 벽면의 크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고, 입면구성이 재료의 크기

와 유형에 따라 좌우되면서 면적과 위치에 따라 디자인이 체계적이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아트월 계획을 위해 아트월의 패널 모듈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트월의 경우 대부분이 벽면 전체를 아트월로 계획하고 있어 그 폭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듈 사이즈를 도출해내기로 하였다.

<표 19> 아트월의 크기에 따른 빈도 분포

(단위: m)

아트월 크기	소	중	대
	1,300 (3개)	2,000 (1개)	3,000 (3개)
	1,400 (4개)	2,100 (2개)	3,100 (1개)
	1,500 (3개)	2,200 (1개)	3,200 (1개)
	1,600 (5개)	2,300 (2개)	3,300 (4개)
	1,700 (1개)	2,400 (3개)	3,600 (8개)
	1,800 (3개)	2,500 (5개)	3,800 (1개)
	1,900 (3개)	2,600 (2개)	3,900 (3개)
		2,900 (1개)	4,000 (4개)
아트월 사이즈 (십자리 반올림)			4,100 (2개)
			4,200 (1개)
			4,300 (1개)
			4,400 (4개)
			4,500 (1개)
			4,600 (2개)
			4,700 (4개)
			4,900 (2개)
계	22	17	42

아트월의 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00m에서부터 7,490m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을 보다 쉽게 유형화하기 위해 십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 크기에서 '대' 크기 사이의 치수(폭 1m 이상 5m 미만)를 살펴보면, '소' 크기에서 22개, '중' 크기에서 17개, '대' 크기에서 42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짝수의 배수는 모두 43개로 파악되었다.

패널의 모듈 크기는 시공의 편리상 짝수의 배수로 정하였는데, 너무 작은 단위는 작업의 편의상 배제하였고, '소' 사이즈의 최소 폭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모듈의 크기는 폭 200mm에서부터 그의 배수인 400mm, 600mm, 800mm, 1,000mm, 1,200mm로 나타났다.

이 중 1,000mm이상의 크기는 폭 2m 미만의 '소' 규모의 아트월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듈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200mm의 크기는 가장 다양한 수의 아트월 구성이 가능하지만, 그 단위크기가 너무 작아서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 모듈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400mm, 600mm, 800mm의 크기 중 서로 배수 관계가 성립되는 400mm와 800mm를 가장 적합한 모듈 사이즈로 선정하여, 작은 단위로 아트월을 구성할 시에는 400mm 크기를 모듈로 정하고, 보다 큰 단위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800mm의 크기를 기본모듈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5.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 실내에 적용된 아트월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위치에 있어서는 모든 면적에서 거실의 아트월 설치 빈도가 가장 높았고, 폭이 3m 이상의 큰 규모가 모든 면적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거실의 입면구성에서는 대칭수직 구조가 주를 이루었고, 타일과 목재를 주재료로 하였다.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서는 타일을 이용한 규칙적자형이 우세하였다.

세대면적에 따라서는 130~162㎡(40평형대)에서 가장 많은 아트월이 설치되었으며, 66~96㎡(20평형대)에서는 비대칭 입면구조가 우세한 반면, 나머지 면적에서는 규칙과 대칭구조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료로는 66~96㎡(20평형대)에서 목재 중심의 복합재료가, 나머지 면적에서는 타일 중심의 단일재료가 주로 적용되었다.

입면구성에 있어서는 규칙적자형>대칭수직형>대칭수평형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 위치, 평형, 크기에 관계없이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입면구조가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크기에 따라서는 '대' 이상의 큰 규모의 아트월은 거실에 주로 설치되었고, '중' 사이즈는 현관입구복도에, '소' 사이즈는 침실입구복도에 주로 나타났다. '대' 이상의 크기에서는 대칭수직형이, '중' 이하의 소규모 아트월에서는 규칙적자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재료에 있어서는 타일>목재>벽지>대리석의 순으로 사용되었는데, 복합형을 제외한 나머지 입면구성과 '중' 이하의 소규모 아트월에서 단일재료가 주를 이루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소형면적 세대의 경우, 목재라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대칭 구조와 복합재료의 사용으로 아트월의 고급화와 개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아트월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타일을 단일재료로 하여 규칙적자구조를 선호하였다. 단일재료로는 타일이 주를 이루었지만, 복합적으로 재료를 쓸 때에는 목재를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거실에서 아트월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복합재료가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주거공간 계획에 있어서 아트월은 거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트월이 주거공간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아트월은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장식성이 높고 거주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획일적인 평면계획으로 평면상으로는 개성 연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아트월의 다양한 가변적 구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시각적 공간연출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아

트월 디자인은 벽면 구조와 패널의 모듈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적용되는 재료의 마감재 접합 라인에 의한 단순한 그리드 계획에 의한 것이어서 다양성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주거공간의 필수적인 장식요소로 자리잡은 아트월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트월의 위치, 세대면적, 크기, 입면구성, 재료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행에 따른 재료와 패턴의 변화에 따라 아트월의 특성이 주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변화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아트월은 초기에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주거공간에 도입되었지만,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면서 주거공간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모듈 사이즈를 400mm와 800mm로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향후 이것을 바탕으로 아트월 구성에 대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그리드 구성과 단일재료의 반복 사용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재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진행된 주거공간의 아트월 계획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공간, 업무공간, 전시공간 등 다양한 성격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아트월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1. Emmanuel Anati, 예술의 기원, 이승재, 초판, 바다출판사, 서울, 2008
2. 한영호 외, 주거공간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초판, 기문당, 서울, 2004
3. 김보현, 아파트 거실 공간의 벽 디자인 특성과 차별화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4. 김수연, 월이미지의 다양성에 의한 시각적 공간연출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
5. 권미경, 아파트 이미지월(Image Wall)디자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6. 윤수연, 주상복합 아파트 단위세대 실내마감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4
7. 이우상, 아파트 거실 이미지월의 심미성 제고를 위한 가변적 모듈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5
8. 대우건설 푸르지오. <http://www.prugio.com>(2010.02 기준)
9. 삼성건설 래미안. <http://www.raemian.co.kr>(2010.02 기준)
10.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2010.02 기준)
1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http://www.hillstate.co.kr>(2010.02 기준)

[논문접수 : 2010. 02. 28]
[1차 심사 : 2010. 03. 16]
[2차 심사 : 2010. 03. 23]
[게재확정 : 2010. 04. 09]